

사회

“20년 키운 외손자에 집되기 싫다”

주월동 70대 할머니 스스로 목숨 끊어 두눈 실명 힘들어 해... “주위분께 감사” 유서

70대 할머니가 앓아눕는 처지가 되자 함께 살던 외손자에게 집이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웃들의 눈물을 적시게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한쪽 눈이 안 보였던 김모(여·70)씨는 평생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았다. 오래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데다가 큰 아들마저 저세상으로 떠나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남은 딸은 20년 전 김씨에게 갓난 외손자를 맡긴 뒤,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매 끼니를 걱정했지만 딸이 자신에게 남기고 간 외손자는 그의 희망이자 보람이었다. 몸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웠지만 외손자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과 근심을 잊

을 수 있었다. 어느덧 손자(박모·22)는 대학생이 됐고, 올 초엔 무사히 군대 생활까지 마치고 돌아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던 지난 5월, 김씨는 남은 오른쪽 눈이 침침해져 광주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청진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다. 오른쪽 눈마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증이 진행돼 실명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동사무소와 장애인 도우미의 도움으로 급한 대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 김씨는 많이 불편해 했다. 김씨의 얼굴에는 점차 웃음이 사라져갔다. 양 눈이 불편해 더 이

상 외손자의 뒷바라지도 힘들었다. 사회복지사로부터 김씨의 소식을 뒤늦게 들은 전 남편이 종종 들러 집안일을 도와줬지만, 사랑하는 외손자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슬픔은 그에게 생애 대한 미련을 버리게 했다. 김씨는 결국 26일 오전 광주시 남구 주월동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자신보다 아까운 외손자에 의해 발견됐다. 김씨는 평소 외손자에게 집이 될까 두렵다는 말을 자주해왔으며, 서툰 글씨로 “너무 힘이 들다. 나를 도와주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짧은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김씨의 이웃인 이모(58)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정이 많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셨다”며 “이런 군대에서 돌아온 손자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취업률 높아진 특성화高 학생들 진학 기피는 여전

광주 전산고 등 3곳 미달

정부가 특성화고교(옛 전문계고) 취업률 높이기 위해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광주 학생들의 진학 기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특성화고 원서접수 마감결과 전체 12개 학교의 모집정원 5081명에 4946명이 지원, 0.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간 경쟁률 차가 커 전산고 등 3곳은 미달됐으며 전남공고 1.31대1, 금곡공고와 자연과학고 각각 1.26대1 등 9곳은 정원을 겨우 넘겼다. 광주고, 전남공고 등 8곳은 전체 정원으로 학생을 모집한 후 과를 배정하며 자연과학고 등은 과별 모집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근 2~3년간 특성화고 지원 학생 수가 최소 정원을 넘겼던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지역에서는 아직도 인문계 선호현상이 여전한데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것 같다”며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중학교 성적 20%~40%대 학생들의 진학이 눈에 띄는 등 질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자율형 사립고 3곳 가운데 2곳은 내년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승덕고는 정원 304명에 421명이 지원, 1.38대1을 기록했다. 송원고와 보문고는 280명 모집에 각각 181명과 170명이 지원, 0.65대1, 0.61대1을 보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버스CCTV 부정차위반 단속 피하려 번호판 가리기 ‘꼼수’ 극성

광주시 고발 등 초강수

지난 9월부터 광주시가 주요간선도로를 경유하는 순환 01번 등 4개 노선 10대의 버스에 카메라를 장착, 불법정차 단속에 나서자 적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당국에도 계도에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검찰 고발 등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광주시는 27일 “지난달 말부터 시·구 합동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는 차량에 대해 계도장 503매를 배부하고 231건

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암체온전자’가 근절되지 않자 광주시가 고발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25일부터 개정 시행돼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관란하게 해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한 만큼 ‘검찰 고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Includes a map of the region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probabilities for various locations like Seoul, Incheon, and Gwangju. Also includes a table for sea temperature and wind speed.

Bus CCTV violation statistics table. Columns include date, number of violations, and date of the next violation. Shows a trend of decreasing violations over time.



연탄배달 봉사활동. 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원들과 조대여고, 동일전자정보고 학생들이 지난 26일 광주시 동구 자산1동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가정에 연탄 1200장을 전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 고교 학생부 정정 교사 56명 주의·경고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부당 정정해 적발된 전남지역 고교 교사 56명이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 156개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부당정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55건(28개교)을 적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교사 49명에 대해 주의, 7명은 경고처분했고, 8개 학교에 대해 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남수용 뜬 치료 합법” 현재, 기소유에 처분 취소

구판(堂) 김남수(96) 용에게 구사(뜬 농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뜬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에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어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김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뜬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명이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Can't hear words well?). Features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a globe. Promotes hearing aid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cross the country.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services. Includes sections for '무안 공항 직항 전세기' (Muan Airport Direct Flight Charter), '프리미엄 특가' (Premium Special), and various travel packages for Europe, East Asia, China, Jeju, and Japan. Includes contact numbers and website information.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containing legal disclaimers, contact information, and publication details.